

## 한·중 기업가정신교육이 창업의지에 미치는 영향 : 기업가정신 매개효과 및 성별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송은실(단국대학교 미래ICT융합창업학과)\*, 박준혁(삼성경제연구소)\*\*,  
남정민(단국대학교 미래 ICT융합창업학과 교수)\*\*\*

### < 목 차 >

I. 서론	IV. 연구 결과
II. 이론적 배경	4-1. 인구통계학적 분석 및 집단비교
2-1. 기업가정신	4-2. 상관관계, 매개효과, 조절효과 분석
2-2. 창업의도	4-3. 분석결과
2-3. 기업가정신교육	V. 결론 및 제언
2-4. 한·중 창업환경 비교	5-1. 연구 결과 요약
III. 연구 방법	5-2 연구의 시사점
3-1. 연구모형 및 가설 설정	5-3 연구의 한계점 및 향후 연구 방향
3-2. 분석자료 및 표본 특성	참고문헌
3-3. 측정도구 및 분석방법	Abstract

### < 요약 >

최근 기업가정신 함양을 위한 교육이 강조되고 있다. 기업가정신 함양을 통한 사회·경제활동 참여가 경제성장 및 발전의 중요한 요소로 작용되고 있으며, 특히 여성창업은 경제성장은 물론 고용의 다양성을 향상시킨다는 점에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GETR(Global Entrepreneurship Trend Report) 한국과 중국의 데이터를 활용하 기업가정신교육경험이 창업의지에 미치는 효과를 규명하고, 기업가정신교육경험과 창업의지 간의 관계에서 기업가정신이 매개역할을 하는지 살펴보고 이들 관계에 대한 성별의 조절효과를 검증하고자 한다.

연구결과, 기업가정신교육은 창업의지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고, 이들 관계에 대

\* 이 논문은 2020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일반공동연구지원사업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20S1A5A2A03041627)

\* 제1저자, 단국대학교 일반대학원 미래ICT융합창업학과 박사과정 cloto31@naver.com

\*\* 제2저자, 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 junhyuck.park@samsung.com

\*\*\* 교신저자, 단국대학교 일반대학원 미래ICT융합학과 주임교수 namjm@dankook.ac.kr

· 논문투고일 : 2021-10-15. · 수정일 : 2021-11-29. · 게재확정일 : 2021-11-30.

한 기업가정신 매개효과가 유의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러나 이들 관계에 대한 성별 조절효과는 유의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기업가정신교육이 기업가정신을 높임으로써 창업의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검증되었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토대로 여성창업을 촉진하기 위해서 다양한 기업가정신교육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여성들의 기업가적 활동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 제고와 창업의지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는 것을 시사한다.

키워드 : 기업가정신, 기업가정신교육, 창업의지, 성별 조절효과

---

## I. 서 론

기업가활동은 국가발전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기업가활동은 다양한 경제주체들이 새로운 조직을 만들어내면서 국가 경제에 활력을 줄 뿐만 아니라 기업가활동에 참여하는 개인들에게 경제적·사회적 자원 획득의 기회를 제공한다. 이러한 이유로 많은 국가에서 기업가정신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과 연구들이 수행되어 오고 있다(박재환 외, 2017). 기업가활동을 촉진하는 방법으로 기업가정신에 대한 교육의 기회를 확대하는 방법이 있으며 이러한 기업가정신교육이 기업가정신을 높이고 창업의도를 높인다는 연구 결과들도 발표된 바 있다.

특히, 한국의 경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여성 고용지표를 분석한 결과 2019년 기준 한국 여성들의 경제활동참가율과 고용률이 각각 60.0%, 57.8%로 집계되어 OECD 37개국 가운데 하위권인 33위와 31위를 기록했다. 연령대별로 분석한 결과 한국의 여성 고용률은 20대에 71%로 가장 높았다가 30대에 59.9%까지 크게 낮아졌다. 이는 성역할의 고정관념으로 인해 육아와 가사에 대한 부담으로 경력단절을 겪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한국경제연구원에 따르면 한국의 30대 여성 경제참가율을 높이고 경력단절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유연한 근무환경 조성 및 여성 경제활동 지원이 중요한 대안이 된다고 제시하였다.

이에 따라 여성의 기업가정신 함양을 통한 경제활동 참여는 경제성장은 물론 고용다양성을 향상시킨다는 점에서도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본 연구는 2016 GETR(Global Entrepreneurship Trend Report) 데이터를 활용하여 한국과 중국의 기업가정신교육경험이 창업의지에 영향을 미치는 효과를 검증하고, 이들 관계에 대한 기업가정신의 매개효과, 성별의 조절효과를 검증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기업가정신교육 및 여성 기업가정신 활성화를 촉진하는 방법을 모색하고자 한다.

## II. 이론적 배경

### 2.1 기업가정신

기업가정신 개념에 대한 정의는 Schumpeter(1950)의 연구를 기점으로 구체화 되었다. Schumpeter(1950)는 기업가정신을 생산성 향상, 경제성장 그리고 궁극적으로 사회발전에 기여하는 혁신과 창조적 파괴활동을 하는 기업가들의 정신이라고 정의하였다. 이후 많은 연구자의 기업가정신에 대한 정의는 그의 관점에 바탕을 두고 있다.

Timmons(1990)은 실질적으로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부터 가치 있는 어떤 것을 이루어내는 인간적이고 창조적인 행동이 기업가정신이라고 하였으며 기업가정신은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자원이나 자원의 부족을 고려하지 않고 기회를 추구하고 하였으며, Drucker(1985)는 위험을 극복하여 새로운 기회를 발견하고 불굴의 의지와 도전 정신으로 사업화를 주도하고 혁신을 추구하는 정신을 기업가정신이라고 하였다.

또한, Miller(1983)는 기업가의 개인 특성을 기업가적 지향성 체계를 갖추어 진취성, 혁신성, 위험감수성 3요소로 구분하고 이를 기업가정신의 구성 요소라 하였으며, Covin & Slevin(1991)은 혁신적이고 진취적이며 위험을 감수하는 역량을 보유하고 있으며 성장 기회를 발견하여 새로운 가치 창출이 가능한 창업자, CEO, 설립자 등에게 기업가정신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이처럼 기업가정신은 학자마다 다양한 개념으로 정의되고 있으나 종합해보면 기업가정신은 현재 통제할 수 있는 자원에 구애받지 않고 혁신성, 진취성, 위험감수성 등을 통하여 새로운 가치와 기회를 창조하기 위해 끊임없이 도전하는 정신으로 기업의 성장과 발전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전체적인 태도와 역량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 2.2 창업의지

창업의지는 창업의도와 의미하는 바는 크게 다르지 않으며 본 연구에서는 창업의도를 창업의지로 보고 분석하였다. 창업의지는 창업을 위한 시작점으로 혁신적인 기술이나 유망한 아이템을 가지고 사업을 새롭게 시작하는 행동으로 창업자의 관심과 행동을 말한다(Bird, 1988). 창업은 창업자와 많은 사람의 투자와 노력이 필요한 활동이다. 따라서 창업은 높은 위험이 수반되고 이를 실행하기 위해서는 확고한 창업의지가 있어야 한다. 창업을 성공하기

위해서는 체계적으로 계획하고 의도적으로 준비해야 하는 계획과 준비과정이 필요하다 (Ajzen, 1991). 장정용(2015)은 창업의지를 실제 창업유무와는 관계없이 미래에 창업을 하고 싶은 마음의 정도라고 정의하였으며, 이지우(2000)는 실질적인 창업 여부가 아니라 미래에 스스로 창업할 가능성에 관한 자신의 평가를 창업의지라 하였다.

국내외 많은 실증연구에서 창업교육이 창업의지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유연호·양동우(2008)는 창업 관련 전문교육을 받은 청년들의 경우 창업에 대한 기본 지식을 갖추고 교육을 통하여 창업의지와 성취를 높인다는 연구결과를 도출하였다, 이우진 외(2013)는 대학 창업교육의 품질요인은 대학생들의 창업교육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며 동시에 창업의지까지 향상시킬 수 있다는 결론을 도출하였다.

### 2.3 기업가정신교육

기업가정신교육은 기업가 활동의도를 높일 수 있다. 교육을 통해 얻게 되는 개인의 지식 및 기술 등은 주요한 인적자본이 될 수 있는데 이러한 인적자본은 기업가정신을 발휘하는데 있어 중요하다(Davidsson & Honig, 2003). 따라서 기업가정신교육은 개인이 실제 창업 행위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지식 및 기술 등과 같은 개인의 기회요소 및 자원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향후 자신이 실제 기업 활동을 하는데 있어 자원 및 기회를 통제할 수 있는가에 대한 개인의 주관적 인식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됨으로써, 창업의도에 대한 호의적 태도가 형성될 수 있다.

Linan, Rodriguez & Rueda(2011)는 기업가정신교육이 사람들의 기업가적 태도를 증가시키는 주요 도구의 하나로 요구되고 있으며 따라서 기업가정신교육을 주도적으로 실시하는 것은 잠재적 기업가들의 공급을 증가시키는 획기적인 방안의 하나임을 제시한다.

유현경·남정민(2021)는 청년의 창업교육 참여가 기업가정신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창업교육 참여는 기업가정신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하였으며, 남정민·이환수(2017)는 기업가정신 교육(초중고, 대학, 평생교육) 참여여부에 따라 신규창업의지는 크게 증가함을 확인하였다. 기업가정신교육이 사람들의 기업가적 태도를 증가시키는 주요 도구로 요구되고 있으며 기업가정신교육을 주도적으로 실시하는 것은 잠재적 기업가들의 공급을 증가시키는 획기적인 방법이라고 제시하고 있다.

기업가정신교육에 대한 성별효과에 대한 연구 결과는 의견이 분분하다. 교육 효과성이 성별 간 차이가 없다고 주장하는 연구도 있지만(Bae et al.,2014). 다수의 연구자는 기업가정신교육의 효과성은 남성보다 여성이 더 높다고 주장한다(Oosterneek et al., 2010). 여성이 사회적 네트워크 및 인적자원의 한계 그리고 성역할 고정관념에 의해 기업가정신이 낮으므로

오히려 여성들에 대한 기업가정신교육이 효과가 더 크다고 설명한다. 여성들은 기업가정신 교육을 통해 기업가활동과 관련된 지식을 획득함으로써 새롭고 변화하는 상황에 적응할 수 있다. 사업에 대한 교육을 받은 후에 기업가가 될 가능성은 여성 1.8배, 남성 1.5배 증가한다고 밝혔다(Wilson et al., 2007). 공혜원·김효선(2018)은 기업가정신교육경험과 창업의도관계에 대한 성별 조절효과가 유의한 것으로 확인하였다. 즉, 여성에 대한 교육의 효과성이 더 높음을 증명하였다. 또한 최종우(2019)도 경력단절 여성의 창업활성화를 위해서는 다양한 창업교육이 활성화 되어야 한다고 제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GETR데이터를 활용하여 기업가정신교육경험이 창업의지에 미치는 효과성을 규명하고, 기업가정신이 기업가정신교육경험과 창업의지 간의 관계에서 매개역할을 하는지 또한 이들 관계에 대한 성별의 조절효과가 있는지 검증하고자 한다.

## 2.4 한·중 창업환경 비교

창업은 국가 경제에 기여하는 바가 크기 때문에 국가 차원의 창업환경 및 기업가정신 지수에 대한 조사와 연구가 활발해지고 있다. 매년 발표되는 글로벌 기업가정신 모니터(GEM, Global Entrepreneurship Monitor) 보고서(2019년 기준)를 보면 한국은 전체 54개국 중 기업가정신 지수(NECD)가 15위인 반면 중국은 4위로 높은 점수를 기록하였다.

특히, 기업가정신교육 및 훈련 부분에서 한국은 54개국 중 41위인 반면 중국은 4위로 대학 및 평생교육에서의 창업교육 또한 활발하여 기업가정신을 높이는 중요한 요소로 기업가정신 교육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표 1> 2019년 국가별 기업가정신 지수(NECD)

순위	국가명	기업가정신 지수
1	스위스	6.05
2	네델란드	6.04
3	카타르	5.91
4	중국	5.89
5	아랍에미리트	5.84
6	인도	5.80
7	대만	5.73
8	인도네시아	5.69
9	노르웨이	5.52

순위	국가명	기업가정신 지수
10	미국	5.31
15	대한민국	5.13

한국과 중국의 창업환경에 대한 선행연구로 김성훈·남정민(2016)은 국내 창업생태계 현황 및 인식을 조사한 연구에서 중국에 비해 우리나라의 창업환경 인식이 나쁜 편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52.9%로 좋은 편이라고 응답한 비율 17.7%보다 약 3배가량 높은 응답률을 보여 주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또한 한국은행이 2017년 7월 발간한 해외경제포커스에 따르면 중국의 신생 기업수는 하루 평균 1만 6500개로, 2012년에는 중국의 인구 1만 명당 신설기업의 수는 14개로 한국 15개와 비슷했지만, 5년 만에 32개로 두배 이상 확대되었다고 분석하였다. 또한 2018년 홍콩사우스 차이나 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세계 최고 여성 기업가 5명 가운데 4명이 중국인이라고 발표하였다. 이처럼 빠른 시일 내에 창업 강국으로 성장한 중국과의 GETR 데이터 비교분석을 통해 기업가정신 교육이 창업 의지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자 한다.

### Ⅲ. 연구 방법

#### 3.1 연구모형 및 가설의 설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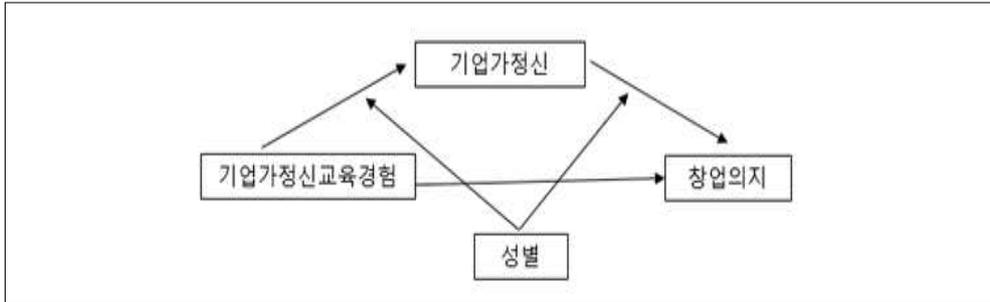
본 연구는 한국과 중국의 기업가정신교육경험이 창업의지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검증하고 이들 사이에 기업가정신이 매개적인 역할을 하는지 살펴보고자 하는 것이다. 본 연구의 연구모형은 <그림 1>과 같다.

Davey et al.(2011)은 기업가정신교육이 기업경영에 필요한 역량축적 및 지식의 자극을 통하여 창업의지를 형성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미친다고 하였다. Yoon(2012)은 창업교육과 개인의 성취욕구가 창업의도와 유의미한 관계가 있음을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선행연구 결과가 보여주는 것과 같이 기업가정신교육경험이 창업의지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변수임을 알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아래와 같은 가설을 설정하였다.

이와 함께 기업가정신이 기업가정신교육경험과 창업의도 간의 관계를 매개하는지 살펴보고, 이들 관계에 대한 성별의 조절효과가 있는지 추가로 검증하고자 아래와 같이 가설을 설정하였다.

<그림 1> 연구모형



- 가설 1 : 기업가정신교육경험은 기업가정신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 가설 2 : 기업가정신은 창업의지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 가설 3 : 기업가정신교육경험과 창업의지 사이에는 기업가정신이 매개역할을 할 것이다.
- 가설 4 : 기업가정신교육경험과 기업가정신 사이에는 성별의 조절효과가 있을 것이다.
- 가설 5 : 기업가정신과 창업의지 사이에는 성별의 조절효과가 있을 것이다

### 3.2 분석 자료 및 표본 특성

본 연구는 중소벤처기업부와 한국청년기업가정신재단이 2015년부터 추진해온 글로벌 기업가정신지수 자료를 활용하였다. GETR(Global Entrepreneurship Trend Report) 자료는 한국을 포함해 총 20개국이 참여한 설문조사 자료로 구체적으로는 아시아지역(한국, 일본, 중국, 인도, 인도네시아, 싱가포르) 총 6개국, 유럽지역(영국, 독일, 러시아, 덴마크, 핀란드) 총 5개국, 중동지역은(터키, 아랍에미리트, 이스라엘) 총 3개국, 아프리카 지역은(남아프리카공화국, 이집트) 총 2개국, 미주지역은(미국, 브라질, 칠레) 총 3개국, 오세아니아 지역은(호주) 1개국을 대상으로 수행된 자료이다.

자료 표본은 국가별 경제활동인구(15~64세)를 대상으로 최소 2,000명 이상을 표본으로 선정해 설문조사를 실시하였고 유효응답자 기준 총 40,355개의 자료가 수집되었다. 1차 표본 결과는 국가별 인구통계에 따라 층화추출 하였고, 2차 표본 결과는 할당 추출하여 표본을 구성하였다. 95% 신뢰수준에서 ±2.19% 표본오차를 갖는다.

주요 질문 문항은 직업과 창업 관련 일반 문항들과 기업가정신 관련 교육 현황을 기반으로 기업가정신 관련 교육의 경험과 실제 교육의 도움 여부를 나타냈으며, 창업 및 기업가에 대한 개인과 사회 전반의 인식, 창업만족도를 포함하고 있다.

〈표 2〉 글로벌 기업가정신 조사 항목

구분	조사항목
기본 설문 문항	1. 성별(0:여성, 1:남성)
교육관련	1. 초중고등학교 기업가정신교육경험(창업교육)(0:없음, 1:있음) 2. 대학과정 기업가정신교육경험(창업교육)(0:없음, 1:있음) 3. 직업.평생교육 과정 기업가정신.기업가정신교육 경험(0:없음, 1:있음) 4. 현 직업종사 중 창업준비교육 경험(0:없음, 1:있음)
창업의향	1. 창업의도(1:전혀 그렇지 않다 ~ 7:매우 그렇다)
개인차원 기업가정신	1. 도전정신(1:전혀 그렇지 않다 ~ 7:매우 그렇다) 2. 창조성/혁신성(1:전혀 그렇지 않다 ~ 7:매우 그렇다) 3. 리더십(1:전혀 그렇지 않다 ~ 7:매우 그렇다) 4. 가치지향(1:전혀 그렇지 않다 ~ 7:매우 그렇다)

본 연구는 2016년 GETR 자료를 활용하여 한국과 중국을 중심으로 기업가정신교육이 창업의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연구하였다.

### 3.3 측정도구 및 분석방법

기업가정신 교육경험은 초·중·고, 대학, 직업훈련 등에 대한 교육 경험 여부에 대해 측정하였다. 기업가정신교육 경험에 대해 있음 ‘1’, 없음을 ‘0’ 으로 변환하여 코딩하였다. 기업가정신은 ‘도전정신’, ‘창조 혁신성’, ‘자기 주도성’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측정문항은 7점 리커트 측정(1=전혀아니다, 7=매우그렇다)로 측정하였다. 창업의도는 단일 문항으로 7점 리커트척도로 측정하였다. 조절변인으로 성별을 포함했다.

본 연구는 SPSS 25.0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측정도구의 신뢰도 검증을 위해 Cronbach's  $\alpha$  신뢰도 계수를 산출하고 변인간의 관계를 살펴보고자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신뢰도는 모든 변수가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Cronbach's  $\alpha$  계수가 .60 이상의 기준으로 진행하고자 한다. 다음으로 기업가정신교육경험과 창업의도 사이에서 기업가정신의 매개효과를 확인하였다. 매개효과 분석은 Baron & Keny(1986)의 제안에 따라 3단계 회귀분석을 수행하였다. 이어서, 기업가정신교육경험과 창업의지 사이에 성별 조절효과를 검증하였다.

## IV. 연구 결과

### 4.1 인구통계학적 분석 및 집단비교

본 연구의 대상자들은 총 4,057명(한국 2,000명, 중국 2,057명)으로 <표 3>과 같이 정리하였다. 먼저 개인적 특성의 경우 성별은 남자가 2,004명(49%), 여자가 2,053(51%)으로 조사되었다. 그 외에도 결혼유무에 대한 사항은 아래와 같다.

<표 3> 연구대상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구 분		한국		중국	
		빈도(명)	(%)	빈도(명)	(%)
성별	남성	1,047	52.3	957	46.5
	여성	953	47.7	1100	53.5
연령	1997년 이후	129	6.5	118	5.7
	1996년 ~ 1987년	368	18.4	470	22.8
	1986년 ~ 1977년	523	26.2	691	33.6
	1976년 ~ 1967년	445	22.3	457	22.2
	1966년 ~ 1957년	452	22.6	243	11.8
	1956년 이전	83	4.2	78	3.8
결혼유무	기혼	1,119	56.0	1503	73.1
	미혼	881	44.0	554	26.9

### 4.2 측정도구의 신뢰도 분석

본 연구는 SPSS 25.0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측정도구의 신뢰도 검증을 위해 Cronbach's  $\alpha$  신뢰도 계수를 산출하고 변인간의 관계를 살펴보고자 상관분석을 실시 하였다. 신뢰도는 모든 변수가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Cronbach's  $\alpha$  계수가 .60 이상의 기준으로 진행하였다.

기업가정신교육 경험의 경우 초·중·고등학교 기업가정신교육경험, 대학과정 기업가정신교육경험, 직업·평생교육 과정 기업가정신교육경험, 현 직업종사 중 창업준비교육 등 4개 문항이 한국은 .72, 중국은 .77로 나타났으며, 기업가정신 척도의 문항 구성 도전정신, 창조성, 리더십, 가치지향의 신뢰도는 전체 한국은 .95, 중국은 .97로 나타나는 등 모든 변수의 신뢰도

가 높게 나타났다.

〈표 4〉 기업가정신 척도의 문항 구성 신뢰도

하위요인	문항번호	문항 수	신뢰도 (Cronbach's $\alpha$ )
도전정신	1 ~ 10	10	.86(.91)
창조성	11 ~ 20	10	.92(.94)
리더십	21 ~ 26	6	.81(.82)
가치지향	27 ~ 33	7	.83(.87)
전체		33	.95(.97)

주) 괄호 안은 중국 데이터

## 4.2 한국과 중국의 기업가정신교육경험이 창업의지에 미치는 영향

### 4.2.1 상관관계 검증

본 연구에서 사용된 변수들간의 연관성을 살펴보기 위해 피어슨 상관관계 분석(Pearson's correlation analysis)을 실시하였다. 상관관계 분석결과 기업가정신교육경험은 기업가정신, 창업의지와 정적 상관이 있고, 기업가정신은 창업의지와 정적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5〉 주요 변수 간 상관관계

변수	1	2	2-1	2-2	2-3	2-4	3
1.기업가정신교육 경험	1	.34***	.33***	.32***	.30***	.28***	.38***
2.기업가정신	.24***	1	.93***	.96***	.90***	.92***	.48***
2-1.도전정신	.24***	.88***	1	.83***	.76***	.78***	.49***
2-2.창조성	.21***	.94***	.75***	1	.83***	.85***	.46***
2-3.리더십	.16***	.86***	.63***	.78***	1	.84***	.42***
2-4.가치지향	.19***	.87***	.64***	.78***	.78***	1	.41***
3.창업의지	.17***	.41***	.44***	.38***	.29***	.30***	1

대각선 아래: 한국, 대각선 위: 중국, \*\*\*p<.001

### 4.2.2 매개효과 검증

Baron & Kenny(1986)가 제안한 매개효과 검증 3단계 절차에 따라 매개효과분석을 실시하였다. 첫 번째 단계에서는 독립변수가 매개변수를 유의미하게 예측하는지를 검증하고 두 번째 단계에서는 독립변수가 종속변수를 유의미하게 예측하는지를 검증하며 세 번째 단계에서는 독립변수와 매개변수가 동시에 종속변수를 유의미하게 예측하는지를 검증한다. 여기서 매개변수는 종속변수를 유의미하게 예측해야 하고 세 번째 단계에서 독립변수의 표준화 회귀계수가 두 번째 단계에서의 표준화 회귀계수보다 작게 나타나야 한다. 작아진 표준화 회귀계수가 유의미하지 않게 되면 완전매개(full mediating), 유의미한 수준을 유지하면 부분매개(partial mediating)가 성립되는 것으로 판단한다.

기업가정신 교육 경험과 창업의지 간의 관계를 기업가정신이 매개하는지를 검증한 결과를 <표 7>과 같이 제시하였다. 첫 번째 단계에서 독립변수인 기업가정신 교육 경험이 매개변수인 기업가정신을 유의미하게 설명하였고, 두 번째 단계에서는 독립변수인 기업가정신교육 경험이 종속변수인 창업의지를 유의미하게 설명하였으며, 세 번째 단계에서는 독립변수인 기업가정신 교육 경험과 기업가정신이 창업의지를 유의미하게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두 번째 단계의 표준화 회귀계수의 크기가 세 번째 단계로 넘어갈 때 한국은 .17에서 .08로 영향력이 작아졌으며, 중국은 .38에서 .25로 작아졌고, 작아진 회귀계수들이 여전히 유의미하므로 기업가정신은 기업가정신 교육 경험과 창업의지 간의 관계를 부분매개 함을 알 수 있었다.

<표 6> 기업가정신교육 경험과 창업의지 간의 관계에서 기업가정신의 매개효과

그룹	구분	변수	B	SE	β	R2	F
한국	1(독립 ->매개)	기업가정신교육 경험->기업가정신	.20	.02	.24***	.055	101.66***
	2(독립 ->종속)	기업가정신교육 경험->창업의지	.25	.04	.17***	.029	51.55***
	3(독립,매개 ->종속)	기업가정신교육 경험->창업의지	.12	.03	.08***	.165	171.21***
	기업가정신->창업의지	.68	.04	.38***			
중국	1(독립 ->매개)	기업가정신교육 경험->기업가정신	.23	.02	.34***	.113	14.54***
	2(독립 ->종속)	기업가정신 교육 경험->창업의지	.45	.03	.38***	.143	276.19***
	3(독립,매개 ->종속)	기업가정신 교육 경험->창업의지	.30	.03	.25***	.270	306.09***
	기업가정신 >창업의지	.67	.04	.38***			

\*\*\*p<.001

### 4.2.3 조절효과 검증

기업가정신교육경험과 창업의지 간의 관계를 성별이 조절하는지를 검증하기 위하여 1단계에서는 독립변수와 조절변수를 투입하고 2단계에서는 독립변수와 조절변수의 상호작용 항을 투입하는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 1) 기업가정신 경험과 기업가정신 간의 관계에서 성별의 조절효과

기업가정신에 대한 성별의 조절효과 검증 결과는 <표 8>에 제시한 바와 같다. 먼저 한국을 살펴보면, 첫 번째 단계에서 독립변수인 기업가정신교육경험과 조절변수인 성별이 기업가정신을 유의미하게 설명하였다. 반면, 두 번째 단계에서 상호작용 항이 유의미하지 않음에 따라 조절효과는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중국을 살펴보면, 첫 번째 단계에서 독립변수인 기업가정신교육경험만 기업가정신을 유의미하게 설명하였다. 반면, 두 번째 단계에서 상호작용 항이 유의미하지 않음에 따라 조절효과는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7> 기업가정신교육경험과 기업가 정신 간의 관계에서 성별의 조절효과

그룹	단계	변수	B	SE	$\beta$	$R^2$	F
한국	1	기업가정신교육경험(A)	.17	.02	.23***	.065	60.86***
		성별(B)	.08	.02	.10***		
	2	A	.17	.02	.23***	.066	40.78***
		B	.08	.02	.10***		
A×B		-.01	.02	-.02			
중국	1	기업가정신교육경험(A)	.28	.02	.34***	.113	105.75***
		성별(B)	-.01	.02	-.01		
	2	A	.28	.02	.34***	.113	70.70***
		B	-.01	.02	-.01		
		A×B	.02	.02	.02		

\*\*\*p<.001

#### 2) 기업가정신과 창업의지 간의 관계에서 성별의 조절효과

창업의지에 대한 성별의 조절효과 검증 결과는 <표 7>에 제시한 바와 같다. 먼저 한국을 살펴보면, 첫 번째 단계에서 독립변수인 기업가정신이 창업의지를 유의미하게 설명하였다. 반면, 두 번째 단계에서 상호작용 항이 유의미하지 않음에 따라 조절효과는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중국을 살펴보면, 첫 번째 단계에서 독립

한·중 기업가정신교육이 창업의지에 미치는 영향

변수인 기업가정신만 창업의지를 유의미하게 설명하였다. 반면, 두 번째 단계에서 상호작용 항이 유의미하지 않음에 따라 조절효과는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8〉 기업가 정신과 창업의지 간의 관계에서 성별의 조절효과

그룹	단계	변수	B	SE	$\beta$	$R^2$	F
한국	1	기업가 정신(A)	.56	.03	.41***	.168	201.68
		성별(B)	-.00	.03	-.00		
	2	A	.56	.03	.41***	.168	134.82
		B	-.00	.03	-.00		
		A×B	-.03	.03	-.02		
	중국	1	기업가 정신(A)	.70	.03	.48***	.234
성별(B)			.03	.03	.02		
2		A	.70	.03	.48***	.234	208.54***
		B	.03	.03	.02		
		A×B	.01	.03	.01		

\*\*\*p<.001

연구모형에 대한 가설을 검증한 결과 기업가정신교육경험은 기업가정신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기업가정신은 창업의지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기업가정신교육경험과 창업의지 사이에는 기업가정신이 매개역할을 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하지만 기업가정신교육경험과 기업가정신, 기업가정신과 창업의지에서 성별의 조절효과는 유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 V. 결론 및 제언

### 5.1 연구 결과 요약

본 연구는 2016년 GETR 데이터를 활용하여, 대한민국의 기업가정신교육 및 바람직한 생태계 조성을 위하여 한국과 중국의 기업가정신교육에 미치는 영향들에 대해 검증했다. 가설검증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한국과 중국의 기업가정신교육경험은 기업가정신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둘째, 한국과 중국 모두 기업가정신은 창업의지에 정(+)의 영향을 미

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셋째, 한국과 중국 모두 기업가정신교육과 창업의지 사이에는 기업가정신이 매개 역할을 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즉 기업가정신교육이 기업가정신을 높임으로써 창업의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마지막으로 성별 조절효과를 분석한 결과 기업가정신교육경험이 창업의지에 미치는 영향에서 성별의 조절효과는 유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많은 선행연구에 따르면 남성의 창업의도가 여성보다 높다는 점을 발견할 수 있다. 이는 아직 다수의 국가에 남아있는 성역할의 고정관념에 의해 직업을 선택함에 있어 여성이 남성에 비하여 기업을 덜 선택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하지만 본 연구를 통해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여성들에게도 이러한 기업가정신교육의 기회를 확대함으로써, 기업가적 활동에 대한 긍정적인 영향과 창업의도가 높아질 수 있음을 보여준다.

〈표 9〉 연구모형 가설검증 결과 요약

가설		결과
가설1	기업가정신교육경험은 기업가정신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채택
가설2	기업가정신은 창업의지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채택
가설3	기업가정신교육 경험과 창업의지 사이에는 기업가정신이 매개역할을 할 것이다.	채택
가설4	기업가정신교육경험과 기업가정신 사이에는 성별의 조절효과가 있을 것이다	기각
가설5	기업가정신과 창업의지 사이에는 성별의 조절효과가 있을 것이다.	기각

## 5.2 연구의 시사점

본 연구는 대표적인 기업가정신 지수 조사인 GETR 데이터를 바탕으로 한국과 중국의 기업가정신교육경험이 창업의지에 미치는 효과를 규명하고, 기업가정신이 기업가정신교육경험과 창업의지간의 관계를 매개하는지, 이들 사이에 성별 조절효과를 검증하는데 목적이 있다.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기업가정신을 향상시키기 위한 시사점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기업가정신교육경험은 기업가정신과 창업의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본 연구를 통해서 기업가정신 교육경험은 기업가정신과 창업의지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이러한 측면에서 초등교육을 시작으로 지속적인 기업가정신 교육 확대한다면 그 경험을 통해 잠재적인 기업가를 양성하고 창업활성

화를 통한 국가경제 발전의 토대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본 연구는 기업가정신 교육관련 연구 분야에 있어서 기업가정신교육경험이 기업가정신과 창업의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성별의 효과를 규명하려고 시도했다는 점에서 학문적 의의가 있다. 기업가정신교육경험이 기업가정신과 창업의지에 미치는 성별의 조절효과는 유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기업가정신교육의 효과성이 성별 간 차이가 없다는 선행연구(Bae et.al., 2014)와 일치한다. 여성도 남성과 동일한 교육효과성을 보이는 바 여성 경제 활성화 및 경제활동 참여 확대를 위해 여성의 기업가교육의 참여도를 확대할 필요가 있겠다. 성별로 차별화된 교육을 디자인하기 보다는 기업가정신 발현을 극대화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교육 프로그램 내에 창업생태계를 구성하고 있는 이해관계자들과의 네트워크를 구축하게 한다거나 신생기업과의 연계 인턴십을 제공하는 것이 그 예가 될 수 있겠다. 다양한 기업가정신교육 경험의 기회를 제공한다면, 남성, 여성 모두에게 기업가적 활동에 대한 긍정적인 영향과 창업의지를 높일 수 있음을 보여준다.

### 5.3 연구의 한계점 및 향후 연구 제안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한계점이 존재한다. 이를 토대로 향후 연구 방향을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 본 연구에서 활용한 (재)청년기업가정신재단의 GETR 데이터는 한계가 존재한다. 특히, 창업의도 변수가 단일 문항으로 측정되었기 때문에 개인들의 창업의도를 정확히 측정했는지에 대한 측정의 타당도에 대한 도전이 있을 수 있다.

둘째, 여러 시점의 기업가정신 교육 각각에 대한 효과성을 검증하지는 못했다. 초·중·고등학교 기업가교육, 대학과정 기업가교육, 직업·평생교육과정 기업가교육, 현직업종사시 기업가교육 중 어느 교육이 효과적인지, 반복 교육의 효과성은 어떠한지 확인해 본다면 더욱 풍성한 연구가 될 것이다.

셋째, 기업가정신교육에 있어 기업가정신 및 창업의지에 영향을 주는 많은 변수가 있을 수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성별의 조절효과만을 분석하였다. 창업의지에 미치는 영향은 기업가정신교육뿐만 아니라 창업생태계와 같은 요인과의 밀접한 관계가 있는데 향후 이들 관계에 대한 검증이 이뤄진다면 좀 더 다양한 시사점을 제공해 줄 수 있을 것이다.

넷째, 창업의지와 실제 창업 간의 차이도 존재할 수 있다. 향후 실제 창업 여부를 측정할 실증연구를 수행해본다면 그 연구의 가치는 더욱 높아질 것으로 생각된다.

마지막으로, 한국과 중국이라는 동북아 2개 국가에 대한 연구로부터 다양한 국가 간

한국진로창업경영학회지 제5권4호

비교연구를 통해 이들 간 차이를 규명하는 것 역시 많은 시사점을 제시해 줄 수 있을 것이다.

## 참고문헌

### (1) 국내 문헌

- 김성훈·남정민(2016), 대한민국 창업생태계 현황 및 인식연구, **한국벤처창업학회**, 11(6), 175-183
- 공혜원(2018). 창업경험 및 기업가정신 교육과 기업가 활동의도의 관계: 성별 및 사회안전망의 삼원조절효과, **벤처창업연구**, 13(6), 129-141
- 공혜원·김효선(2018), 기업가정신교육 과 창업의도의 관계-기업가정신매개효과 및 성별 조절효과, **대한경영학회지**, 31(12), 2223-2244
- 남정민·이환수(2017), 주요 국가의 기업가정신 교육 현황 및 효과연구:2016 글로벌 기업가정신 지수의 비교, **벤처창업연구**, 12(6), 111-122
- 박재환·김봉문·김용태(2017), 기업가정신 생태계 활성화 요인에 관한 국가간 비교연구: GETR(글로벌기업가정신트렌드리포트) 자료를 중심으로, **벤처창업연구**, 13(1), 23-30
- 이우진·김진수·김용태(2013). 대학의 창업교육품질이 교육만족도와 창업의지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경영교육연구**, 25(3), 105-131
- 유연호·양동우(2008). 창업의지 영향요인에 관한 실증연구:경력지향성과 사회문화적인 요인 그리고 창업지원프로그램을 중심으로, **대한경영학회**, 21(5), 2347-2368
- 유현경·남정민(2021), 청년의 창업교육 참여가 기업가정신에 미치는 영향: 자기효능감 구성 요소의 매개효과 검증, **한국진로창업경영학회지**, 5(2), 28-52
- 장정용(2015), “예비 창업가의 창업가정신과 개인적 특성이 창업의지와 프랜차이즈 선택 요인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중앙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최종우(2019), 경력단절 여성 창업활성화 연구, **한국진로창업경영학회지**, 2(2), 19~42

### (2) 국외 문헌

- Ajzen, I.(1991). The Theory of planned behavior. *Organisational Behavior and Human Decision Processes*, 50(2), 1-63
- Bae, T, J., Q ian, s., Miao, c., &fiet, J.O.(2014). The Relationship between Entrepreneurship Educaion and Entrepreneurship Intentions: A Meta-Analytic Review. *Entrepreneurship theory and practice*, 38(2), 217-254
- Bird, B.(1988). Implementing entrepreneurial ideas: The caae for intention, *Academy of*

- Management Review*, 13(3). 442-453
- Covin, J. G., & Sevin, D. P.(1991). A conceptual model of entrepreneurship as firm behavior, *Entrepreneurship:Critical perspectives on business and manahement*,3,5-28.
- Davey, T, Plewa. C. & Struwig, M(2011). Entrepreneurshi Peceptions and carrer intentions of international Students, *Education + Training*, 53(5), 335-352
- Druker, P. F.(1985), *Innovation and Entrepreneurship*, New York: Harper & Row, Publishers.
- Davidsson, p., & Honig, B.(2003). The role of social and human capital among nascent entrepreneurs. *Journal of business venturing*, 18(3), 301-331
- Linan, F., Rodriguez-Cohard, J. C. & Rueda-Cantuche, J. M.(2011), Factors affecting entrepreneurial intention levels, a role for education, *International entrepreneurship Management Journal*, 7(2), 195-218.
- Miller, D.(1983). The Correlates of Entrepreneurship in Three Types of Firms. *Management Science*, 29(7), 770-791.
- Oosterneek, H., Van Praag, M., & Ijsselstein, A.(2010). The impact of entrepreneurship educaion on en-trepreneurship skills and motivation, *European Economic Review*, 54(3), 442-454
- Schumper, J(1950), “Capiolism, Socialism, and Democracy” , 3re ed. *New york: Harper and BrotTers Publishers*.
- Solomon, J. K, & Judd, k.(1998). Academic and Sernice Quality in distance Eeucation, A Dissertation Presented to the College of Educaion. *Univ, of Denver*, 36.
- Timmons, K.(1990), *New Venture Creation*, Lrwin. Homewood.
- Wilson, F., Kickul, J. & Marlino, D.(2007). Gender, entrepreneurship Self-efficacy, and entrepreneurial career intentions: Implications for entrepreneur-ship educaion, *entrepreneurship Theory and Pracice*, 32(3), 387-406
- Yoon, Y. S.(2012). The effect of potential Entrepreneurial Motivations on Entrepreneurship and Commitnent to Starts-up. *Mediating Role of Entrepreneurship, Industrial Economy*, 25(2), 1537-1557.

<ABSTRACT>

## Effect of Korean–Chinese entrepreneurship education on the will to start up in business: focusing on mediating effect of entrepreneurship and moderating effects of gender\*

Eunsil Song\*\*, Junhyuck Park\*\*\*, Jungmin Nam\*\*\*\*

Recently, education for cultivating entrepreneurship has been strengthened. Participating in social and economic activities with entrepreneurship works as an essential factor in economic growth and development. Primarily, there is increasing interest regarding the start-up businesses of women since it could contribute to economic growth and improve the diversity in the workplace. This study is conducted using GETR (Global Entrepreneurship) data of Korea and China in 2016. Firstly, to investigate the effect of entrepreneurship education experience on the will to start up in business, secondly, to examine whether entrepreneurship mediates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entrepreneurship education experience and the entrepreneurial intention, and lastly, to verify the moderating effect of gender on these relationships.

According to the study results, entrepreneurship education is confirmed to have a significant effect on the intention of starting a business. Also, the mediating effect of entrepreneurship on the relationship is significant. However, the moderating effect of

---

\* This thesis was conducted with the support of the general joint research support project of the Ministry of Education and the Korea Research Foundation in 2020 (NRF-2020S1A5A2A03041627)

\*\* First author, Ph.D. in Future ICT Convergence Startup at Dankook University Graduate School cloto31@naver.com

\*\*\* The second author, a senior researcher at Samsung Economic Research Institute.park@samsung.com

\*\*\*\* Communication author, Dankook University Graduate School of Science, Future ICT Convergence Department, namjm@dankook.ac.kr

gender on the relationship is not deemed relevant. In other words, It is verified that entrepreneurship education positively affects the intention to start up in business by enhancing entrepreneurship. In this sense, the study result suggests that providing various opportunities for entrepreneurship education can be helpful to increase entrepreneurial intention and raise positive awareness of the entrepreneurial activity of women.

Keywords : entrepreneurship, entrepreneurship education, entrepreneurial intentions,  
gender, global data